**2015 아산청해포럼**

**세션 3: 한중 양자관계: 동상이몽인가 이상동몽인가?**

**사회=**많은 내용을 포함하는 주제다. 이상동몽이든 동상이몽이든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 인식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 시 주석은 ‘차이나드림’을, 박 대통령은 ‘코리아드림’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한중 양국이 공동의 꿈을 이뤄갈 수 있을지 논의해보자.

**발제-A**

한국과 중국은 한 침대에 있는가, 다른 침대에 있는가. 같은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다. 일단 한중은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다. 이 근접성이 수천 년간 양국을 같은 침대로 묶지 않았나 싶다. 두 번째는 지정학적 특수성이 있다. 이 지정학적 특성은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변하지 않았다. 세 번째는 역사문화적 동질성이다. 최근 들어 경쟁 구조가 심화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한중 양국 경제구조의 상호보완성도 같은 침대라고 규정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양국이 한 침대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21세기 큰 그림에서 양국이 공유하는 전략이다. 한국과 중국 모두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더 나아가 동아시아의 안정과 평화를 원한다.

두 나라가 다른 침대에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도 있다. 한국이 글로벌화된 인식 체계 속에서 정서적 특징을 갖고 있다면 중국은 수천 년 역사 속에서 형성된 자기들만의 중국적 특수성을 강조한다. 이 차이는 한국이 중국과 교류를 하면서 부딪치는 일종의 소통상 장애요인이 되고 어느 순간 우리로 하여금 서로 다른 침대에 있다고 느끼게 만든다.

북한에 대한 시각과 접근법도 한중이 다른 침대에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요인이다. 한국은 중국 너머의 북한을 바라보고 접근하고 중국은 한국 너머의 미국을 강력히 의식하며 접근한다. 한중이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방향을 향하려면 서로에게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데 무의식적으로 또는 전략적으로 미국과 북한에 포커스를 맞추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침대가 다름에도 같은 꿈을 꾸기도 한다. 한중일은 언젠가 한미동맹, 또는 북한 문제의 틀을 넘어서는 양국 관계의 실현이 가능하다는 기대를 안고 있는 것 같다. 그걸 현실화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는 별개로 치고 일단 그런 꿈을 공유하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는 것이다. 중국 친구들은 한반도가 통일된다면 통일한국은 역사적, 문화적, 전통적으로 중화권 내의 관성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듯하다.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는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생각은 중국 내에서도 점점 커지는 것으로 보인다. 또 방법론은 차치하고 통일 한반도를 한국이 주도하리라는 데에 있어서도 한중이 같은 계산을 하고 있거나 인식차가 줄지 않았나 싶다. 중국이 강대국의 꿈을 키워가는 것에 대해 한국에는 시간의 문제일 뿐 중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 최소한 중국이 주도하는 동아시아 질서가 올 것이란 점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부분은 한중 양국이 같은 꿈을 꿀 수 있는 요소이자 근거이며 배경이 된다.

다른 꿈도 있다. 한국인들이 자존심, 독립심이 강하다고 했는데, 그에 비춰보면 중국은 한국을 속국으로 생각했던 당시의 전통질서, 중화질서로 회귀하려는 의식이 잔존한다. 그런 면을 볼 땐 한중이 같은 꿈을 꾼다고 할 수 없다.

또 통일을 논하기 전에 우리는 북한 문제를 넘어서야 한다. 중국은 북한의 안정을 바라고, 북한을 전략적 자산이나 하나의 활용카드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 점이 한국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한국의 일부 세력은 북중 관계를 분리시켜서 통일에 활용하겠다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부분적일지라도 같은 꿈을 꾼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 나아가 중국은 한중 관계 상호의존을 심화시켜 결국 ‘이미종중’, 한국을 미국으로부터 떨어뜨리고 언젠가 미래에 한국이 다시금 중국에 종속되게 한다는 꿈을 꾸는 것 같다. 반면 한국의 경우는 21세기엔 통일 과업을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다. 이 통일을 이룬 한국은 과거와는 다른, 보다 강력하고 독립적인 국가로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주도세력이 되고자 하는 꿈을 꾸고 있다. 각자의 생각과 경험에 따라 차이가 있을지 모르나 한중 사이의 이몽을 설명하는 요소에 포함되지 않을까 싶다.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를 놓고 보면, 이명박 정부 때 ‘가치동맹’을 강조하면서 한미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한중이 전략적 동반자라라면 한중은 어떤 전략적 목표를 공유할 수 있는가, 공유하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말로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이면서 전략적 목표가 일치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진지한 협력을 추진할 수 있겠는가.

**발제-B**

한 번도 한중 양국 관계를 부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다른 침대에 있다고도 여긴 적이 없다. 그래서 침대는 내려놓고 꿈에 대해 말하려 한다.

한국 대통령은 단임제다. 시 주석과 박 대통령의 사이가 좋기 때문에 관계가 발전 중인데 이게 지속 가능할까. 지난 며칠간 중국 언론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보도된 뉴스는 시 주석의 영국 방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중영과 중한 관계 발전이 미국의 대유럽, 대아시아 동맹이 약화된 결과라고 말한다. 영국은 일대일로에 참여하기로 했으며, 한국은 참여한다고 했으나 미국과 함께 있다. 시진핑 주석이 영국을 방문했을 때 양국은 ‘21세기를 향하는 글로벌 전면적 전략동반자 관계’로 관계를 격상하였다. 21세기라는 시점, 글로벌이라는 공간, 전면적이라는 말, 모든 관점에서 중영 양국은 현재가 골든에이지라는 점을 보여준다. 한중이 양국을 전략적 협력 동반자라고 말하는데 양국 관계는 정치, 경제, 외교, 인문, 문화 등의 다양한 차원으로 나눌 수 있다. 지역적인 면에서도 동아시아, 동북아시아, 아시아태평양으로 나눌 수 있다. 한중 관계엔 네 가지 특징이 있다. 양국 관계는 노래 제목 ‘가장 익숙한 낯선 사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주변 환경이다. 전체적인 배경, 정세가 변하고 있다. 미국이 ‘피봇 투 아시아(Pivot to Asia)’를 표방하고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있다. 남북한, 북중 관계도 계속 변화를 겪는 중이다. 금년에도 지난 수개월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중국은 AIIB 출범을 기뻐한다. 한중 FTA도 그렇고, 박 대통령이 열병식에 참여한 것도 중국에 기쁜 일이라고 생각한다.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중국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하지 않아 한국 관광산업에 큰 영향이 미쳤다는 사실이 발견됐다. 이런 상황에서 한중이 어떻게 발전할지 주목해야 한다.

두 번째 특징은 양국의 관계가 다른 양자관계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이 발생했을 중국은 북한 편을 들었고, 한국 사람들은 ‘북한이 하지 않았다고 하니 중국이 이를 믿는 것 같다’고 했다. 한중 관계는 정세에 영향을 받는다. 가까워지느냐 멀어지느냐가 다양한 양자, 다자 관계에 의해 좌우된다.

세 번째,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한중 사이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북한, 미국, 통일, 영토, 역사(고구려), 다양한 가치관, 이데올로기, 경제 등의 문제들이 현시점에는 크게 부각되지 않더라도 향후에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 어떤 것이든 심각해진다면 한중 관계의 긍정적 발전에 영향을 줄 것이다.

네 번째, 중미 관계와는 다르게 비대등성이 있다. 한국이 보는 한중과 중국이 보는 한중은 서로 대등하지 않다. 특히 한국에게 그렇다. 한국은 강대국에 의해 포위당한 국가가 아닌가 싶다. 태극기를 보면 묘한 감정이 든다. 한국 국기는 여러 함의를 담고 있는데, 그 모양을 보면 태극의 붉은색은 북한, 파란색은 남한, 주변 4괘는 중•미•일•러 4개 강대국 같다. 한국은 힘든 운명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한 번도 한중 양국 관계를 부부로 본 적이 없다. 중국은 남과 북을 싸움 중인 형제로 본다. 남한은 좋은 사람, 북한은 나쁜 사람이라고 보지 않으며, 다만 형제가 싸우고 있으니까 어서 화해하기를 바란다. 한국은 중미관계를 어떻게 보는가. 두 명의 큰 형이다. 두 형 모두가 내가 네 형이니까 나를 따르라고 말한다. 문제는 둘 사이에 마찰이 생길 땐데, 한국에게는 선택하기 힘든 순간이 아닐까 싶다.

한국에게는 한미, 중한 두 가지를 균형 있게 가져가기가 어렵다. 마찬가지로 중국에게는 한반도 남북한 양쪽과 모두 균형 있는 전략을 갖기가 어렵다. 전략적 협력이든 또 다른 어떤 관계든 우리는 다양한 영역으로 나눠서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공동의 이익, 공동의 꿈이 있는지 논의하고 이견을 축소하고 공통점을 확대해야 한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중국-A**

한국이 이 나라, 저 나라와 함께하는 나라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침대’는 전통적 의미에서 하나의 계약이다. 미국은 한국과 동맹 관계에 있다. 한 침대로 있기로 계약을 맺었다. 누구도 양국이 한 침대에서 자는 것을 비난하지 않는다. 침대는 아주 가까운 관계를 드러내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한중은 결혼과 같은 계약이나 동맹관계를 맺지는 않았으나 일본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 침대에 자고 있다. 그리고 이 침대는 중국과 한국 간의 아주 가까운 관계를 말해준다.

중국과 한국이 동상동몽에 이를 수 없을까. 구체적으로 이행해가는 과정에서 동상이몽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상동몽의 상황이 될 수도 있다. 한중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첫째로, 우리는 좀 더 가까운 관계를 가질 필요가 있다. 대등하게 서로를 바라보고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 중국인들은 한국과 북한을 똑같이 본다. 한반도의 남북한 모두를 중국의 부인으로 본다. 북한이 첫 번째 부인, 한국이 두 번째 부인이다. 나는 이것도 좋지 않다고 본다.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평등하지 않다는 거다. 국가 간에는 남편, 아내가 없다. 모두 평등하고 솔직하게 대해야 한다.

두 번째로 한중 양국이 각자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서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상대에 대한 배려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양국이 하나의 문제를 두고 너무 가까워지면 불편할 수 있다. 하지만 친하지 않아도 불편하다. 두 가지 핵심 문제에 대한 이견이 있다. 대북정책이 다르다. 물론 우리는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일치된 입장을 갖고 있다. 대미 관계에서도 다르다. 중미 간엔 협력구도와 경쟁구도가 모두 있는데 최근엔 경쟁이 부각 중이다. 때문에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한국은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한국이 대북 문제와 대미 문제를 처리할 때는 중국도 이를 용인하고 편안히 해야 한다. 한국이 더 편하게 결정할 수 있게끔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미 문제에 있어서 한국에 어느 정도 압력이 가는 것도 알고 있지만, 핵심 이슈에선 상대를 배려해야 한다.

세 번째로, 지금이 중미, 중한 간 관계가 역사적으로 좋은 시기라고 생각한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증거도 있다. 구동존이(求同存異)를 잊지 말아야 한다. 마지노선이다. 구동화이(求同化異)해야 한다. 양국 간 관계를 가깝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성 친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익의 절충점을 찾아야 하는데, 예를 들어 둘이서 똑같은 자리에서 같은 솥에 밥을 먹게 된다면 이익의 공통점이 늘게 된다.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중한이 같은 침대에 있게 된다면 그때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 다른 사람이 개입한다면 같은 침대에 있기 어렵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B**

한중 사이에 정말 침대가 있나? 그리고 공동의 꿈이 있는가? 침대는 있지만 두 나라 관계만이 아닌 다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침대가 얼마나 큰지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중국은 계속 경제개방을 해왔고 현재는 성장이 둔화됐으나 창조력이 증가하여 아시아에 점점 더 많은 침대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도 중국의 이웃국가로서 많은 창조력을 가지고 있다. 만약 두 개 침대가 있고 모두 거기서 자고 싶어 하는데 하나는 중국에서 제공했고 하나는 미국에서 제공한 것일 때, 내가 묻고 싶은 건 한국이 어떤 침대를 선택하겠는가다. 한국이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할 때 얼마나 주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그게 전략적 안정감, 편안함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서로 뜻이 다른 사람과 한 침대에서 자는 것을 받아들일까에 대해서도 생각한다. 전략적 협력이라는 영역, 속도, 일정, 구체적 행동에 있어서 어떤 결정을 하는 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중 간 공동의 꿈은 있다. 한반도 핵 문제, 북한, 정치 안정, 전체 지역 안정에 있어서 커다란 문제가 생기지 않길 바라는 게 공동의 꿈이라고 생각한다. 입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같은 꿈이 있고, 이 공동의 꿈을 업그레이드해서 강한 꿈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어렵다. 이걸 해결해야 한다. 전략적 약속이 있어야 이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중국-C**

꿈을 하나의 계약을 본 부분은 시사점이 있다. 구동존이에서 구동화이가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아주 좋은 사고의 기반을 제공했다고 본다.

**한국-A**

듣기에 당혹스러운 몇 가지 부분이 있었다. 우선은 한국이 여성으로 둔갑할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고, 또 ‘대국’이라는 중국의 노골적인 표현을 듣게 될 줄도 몰랐다.

이런 생각을 해 봤다. 내가 만약 술에 취해 집에서 고함을 지르고 행패를 부렸다면 식구들에게는 집 안의 식칼, 가위, 골프채 등이 무서울 거란 생각이 들었다. 이를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의 관점에서 보자. 지난 9월 3일 열병식에서 여러 무기들이 공개됐다. 거기서 미사일 문제를 예로 들겠다. 대만을 사이에 두고 52, 53부대에 미사일을 배치하고 미국을 겨냥하는 DF-31을 배치하는 것은 이해된다. 그런데 왜 동북삼성에 미사일이 그렇게 많은지 이해할 수 없다. 특히 51부대 소속 통화 여단에는 남한을 겨냥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미사일이 배치돼있다. 선의로 그 미사일이 남한을 직접 겨냥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싶지만 그렇게만 볼 수도 없다. 이들 미사일들은 한국군, 주한미군, 괌이나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을 겨냥한다. 한반도에서 북한과 갈등이 벌어지면 한국을 지원할 미군을 겨냥하는 그 미사일들이 한국에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대만과의 갈등이 심해질 때 미군의 개입을 걱정해 여러 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이해한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이 겁내는 말을 한다. 중국측 참석자들 가운데서 한국을 ‘강대국에 포위된 국가’라고 표현했다. 너희들은 약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건데 이런 치욕적인 말을 들어야 하나 싶다. 중국이 한국에게 이들 의심스런 무기로 심리적인 압박이나 외교적 압박을 가하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안보는 가장 최후의 문제다. 침대 옆에 있는 무기들이 언제 어떻게 사용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게끔 중국이 행동한다는 것을 중국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한국은 그걸 신경 쓰고 있다. 미사일 문제를 미중 문제라고 하면서 한국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할 때 과연 한국이 가져야 할 입장은 무엇이며 그것이 궁극적으로 한중 관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인가에 대해 중국의 생각을 묻고 싶다. 한국에게 중국의 그런 무기들이 아무렇지 않은 것일 수 있겠는가.

**발제-B**

설명을 더 해야 할 것 같다. 한국에게 모욕을 주고자 한 것이 아니다. 지정학적 각도와 한국의 역사에 비추어 봤을 때 한국은 4 개 강대국 사이에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린 거다. 김대중 대통령이 한국은 ‘고래 옆에 있는 새우’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만약 친구를 만들고 싶다면 이 무기가 자신을 향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이 만드는 무기가 기술적으로 훨씬 뛰어난데 왜 중국이 갖고 있는 무기만 한국을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한국-A**

중국과 북한 사이를 혈맹이라 하듯 미국과 한국도 혈맹이라는 인식이 있다. 6.25라는 전쟁을 통해미국은 한국을 보호했다. 이후에도 북한을 같이 막는다. 그래서 미국의 무기가 한국을 겨냥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실제로 그렇게 배치돼 있지도 않다. 그런데 중국의 미사일들은 어떻게 전부 주한미군과 한국기지, 오키나와 괌 주일 미군기지들을 겨냥하고 있다. 다른 생각이 들지 않겠나. 한국은 직접 북한의 위협을 받고 대응해야 하는 처지이고 중국은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가 느끼는 느낌의 척도도 다를 수밖에 없다.

**중국-D**

침대란 가까운 관계를 보여준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기호에 너무 얽매여서는 안 된다. 과거 한중 관계를 ‘집’으로 표현했다. 시진핑 주석이 방문했을 때 함께 우리 터전을 만들어가자고 말씀했었기 때문이다. 중국의 많은 학자들도 한중 FTA 체결 이후 함께 살아나갈 수 있다는 말을 했다. 함께 생활한다는 건 곧 한 집에서 산다는 뜻이고, 함께 집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공동 의무다. 한반도 문제가 발생하면 한중 양국이 가장 큰 피해를 입기 때문에 한중 양국은 한 집안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우리는 핵심적인 안보 전환기, critical period에 있다. 먼저 중국 관점에서 보자면 중국의 파이가 계속 확대되는 중이다. 21세기 들어 더욱 발전하고 있다. 동북아 평화 역량의 발전기라고 생각한다. 나는 계속 발전해나가는 중국 군사력에 희망을 갖고 있다. 그렇다고 우리 군대가 향후 다른 나라를 위협한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평화발전의 길을 표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안보를 담보하고자 한다. 이미 정책적으로 선포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 군대의 성장이 지역 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한다. 모두가 자국의 시각에서 보기 때문이다. 중국의 군사력은 아직 미국과의 격차가 크며, 한국도 군사 면에서 강국이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한국은 중국 군사력의 강화를 목도하면서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현재 한반도에는 세 가지 안보 구도가 얽혀 있다. 첫째, 중미가 이 지역에서 경쟁 및 협력 하면서 지역 정세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과거 냉전구도와는 다르다. 두 번째는 한미 관계다. 한미 관계는 역사적으로 냉전의 산물이다. 한국은 한미 관계가 한국이 의존할 수 있고 예상할 수 있는 안보의 힘이라고 말한다. 세 번째는 한미중 삼국관계다. 한중 양국 관계가 가까워지는 데에는 공동의 판단이 있을 것이다. 계속 우호적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한중은 상대방의 안보 우려를 이해하고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한미군사동맹을 강화하는 동시에 독자적인 안보도 구축해야 한다. 안보 독립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통일을 할 수 있는가. 한국의 정치적 독립성이 없다면 국제적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한국-B**

한국이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다고 말하는 건 괜찮지만 중국이 스스로 자기 국가를 ‘강대국’, 또는 ‘큰 형’이라고 칭하는 것은 한국 입장에서 불편한 일이다. 한국이나 동북아 국가들을 보면 강대국은 다들 자기가 옳고 상대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 하다. 한미동맹에 대해 중국 분들이 불편하게 생각한단 이야기를 아주 여러 번 들었다. 그러면 중국은 미국과 같은 꿈을 만들어갈 생각은 없구나, 적으로 생각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한 중국측 참석자가 남북의 작은 형제들이 싸운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작은 형제들 입장에서는 이런 관계가 아주 불편하다. 주변의 나라들은 우리와 같은 꿈을 꿔야 한다고 늘 얘기하는데 정작 강대국끼리는 같은 꿈을 꿀 생각이 없어 보인다.

**중국-E**

양국간 국가적 위상과 국가 포지션을 접목시켜 말하고자 한다. 중국은 지역 차원의 대국이라고 생각한다. 세계 각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글로벌 전략이 없다. 그리고 중국은 당분간 전 세계 영향력과 글로벌 전략을 접목시킬 생각이 없다. 현 단계에서 중국은 세계적인 범위에서 지역 대국이다. 중국 외교에 있어 주변국은 아주 중요하다. 중화외교회의에서도 이 같은 얘길 했었다.

한국은 중진국 외교를 표방해왔다. 중진국의 성립 요소에는 국력이나 경제력뿐 아니라 국가영향력도 포함된다고 본다. 국제적 이슈를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중국과도 조율해나가야 한다. 한중 사이에는 공동의 이슈이자 공동의 우려로 작용하는 교집합이 있다. 정부측 말을 빌자면 공동의 운명이자 이익이다.

**중국-F**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은 중국 외교정책성의 근간이다. 중국 공산당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느낀 것은 이데올로기는 중국 개혁개방 이후에 이미 중국 외교에서 갈 곳을 잃었다는 점이다.

**한국-C**

최근 한 한국 외교관은 중국과 협상을 했는데 매우 불쾌했다는 말을 했다. 노골적으로 협박에 가까운 태도를 보였다며 협상을 많이 했지만 이런 협상은 처음이다, 기분이 아주 나빴고 같이 하고 싶지 않았다고 하더라. 중국의 경제성장이나 부상에 대해 주변국들이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중국이 사용하는 방법들이 거칠다는 게 문제다. 중국은 중국의 주변국들, 베트남, 팔리핀, 인도 같은 나라들과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한국과는 그런 문제는 없지만 잠재적 요소는 있다. 그렇다면 중국이 과연 글로벌리더로서의 준비가 돼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미국은 중국과는 완전히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앞서 1세션에서 언론이 중국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중국에 나가있는 한국 기자들은 공통적으로 중국에서는 너무 취재하기가 힘들다고 토로한다. 인터뷰를 다 거절한다. 취재를 할 수가 없다. 부정적 이미지를 전달한다고 했는데 그런 걸 해소하려면 취재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중국-G**

한국은 중국이 대국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듯하다. 중국이 강대국이 되고 나서 한국이 정책의 독립성을 잃고 중국 외교정책에 예속될 것을 걱정한다. 한미관계는 ‘Let’s go together’이고 한중은 시 주석이 말씀한 것처럼 ‘국제 간 이야기를 통해 의논 가능한 관계’다. 중국은 다른 나라와의 관계는 의논해서 해결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공동의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이 일방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논하여 정책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한중이 서로 대등한 관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국-D**

한미 간에도 이와 비슷한 대화가 있었다. 변수는 늘 북한의 위협이었다. 변화해야 할 시점에 이를 지연시킨 부분들이 있었다. 한미 간에도 이견이 없을 수 없었고 그럼에도 강화되는 방향성을 유지했는데 중국과 한국 사이에도 그런 연속성을 유지할만한 동인이 있는가.

양국간 지리적 근접성을 많이 언급하는데 이는 공동 이슈를 만들어내는 근원이기도 하지만 사실 갈등의 근원이기도 하다. 아이덴티티가 다른 그룹이 근접해 있을 경우 갈등 발생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 통일에서 중국의 역할, 통일 이후 주한미군의 지위에 대한 중국의 우려 등도 근접성 때문에 발생하는 갈등들이다. 한미 사이에는 미국이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또 다른 이익을 취하고자 하지 않으리라는 입장이 있다.

전략적 공동이익과 안정과 평화가 거론되는데 이는 과정이자 결과다. 한중 간에 선호하는 솔루션에 대한 이견이 매우 크다. 북핵에 관해서 우리는 억제를 원하지만 중국은 자제를 말하고, 중국은 북한 문제를 장기적으로 보지만 한국은 단기적으로 본다. 과정에서 계속 이견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한중이 상대방에게 포커스를 맞출 수 있다고 말하는데 국가 이익의 매트릭스가 참 다르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이익이 있을 수 있고 중요 이익이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서로서로 다르다. 사회적 이익은 아무래도 안보에 관한 것이고 중요이익은 경제 부분, 부수이익은 사회문화 부분인데 그럼 한국의 사회적 이익과 중국의 사회적 이익이 같은가. 눈높이가 다르다. 중국이 주도하는 질서에 한국이 장기적으로 과연 동감할 수 있을 것인가. 한국 입장에선 사실 중국의 소프트파워와 미국의 소프트파워를 보면서 체감하는 것이 다르다. 민주주의를 선호하는 부분이 있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왜 전략이 앞에 붙었나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놓을 수 없는 상태에서 동몽(同夢)을 논의할 경우 한미를 같이 끌어안으면서 건설적인 방향으로 한중 관계를 발전시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

**중국-H**

외국에서의 취재는 모든 기자들이 다 부딪치는 문제다. 한국에 온 다른 나라 기자들도 취재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 말하고 싶은 것은, 별 뜻 없는 말에도 기분 나쁠 요소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듣는 사람은 나를 견제하려는 건가 오해할 수도 있겠으나 사실 그렇지는 않다. 말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포인트가 달랐다. 그래서 표현에 있어서, 민감한 문제는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한 부분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부분을 다시금 생각하게 됐다.

중국에도 걱정이 있다. 주변국과의 정책과 관련해 필리핀과 한국은 남중국해 관계에서 좋지는 않아도 군사적으로 긍정적인 관계라고 생각한다. 중국의 안보에 있어 한국의 입장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한미동맹에는 중국 견제의 의미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한국-E**

‘동상이몽’이라는 말 자체가 ‘상’이 아닌 ‘몽’에 방점이 있다. 그럼 과연 공동 목표가 있는가. 이 관점에서 한국 일부에서는 중국이 대북압박정책에 도움이 될 거다, 아니다 중국은 북한에 교류와 지원의 역할을 할 거다라는 논의가 있다. 북핵 문제가 중요한데 그에 대해선 당연히 약속을 이행하고 제재를 완화하는 단계가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나라로서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남북교류를 통해 한반도 긴장이 낮아지고 지역 안정이 이뤄진다면 통일한국이라는 강한 나라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 그 통일한국에 주한미군이 있겠나. 반드시 그렇진 않을 것이다. 평화로운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F**

중국 주도 질서에 한국이 과연 동참할 수 있는가. ‘Why not?’이라고 말하고 싶다. 미국 질서에 한국이 포함된 건 백 년밖에 안 된다. 오랫동안 중국 질서 안에 있었다. 한국은 결국 적응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문제는 과연 중국이 성숙한 강대국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적응하고 싶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규범과 제도를 창출할 수 있는가에 있다. 중국이 버리지 못하고, 중국이 가질 수밖에 없는 신중화주의가 있다.

유럽은 세계대전 이후 전쟁 방지를 위해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성했다. 유럽통합의 목표와 가치를 함께 논의하고 수시로 현안 문제를 해결하면서 오늘날 EU 통합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한중 간에도 불협화음 등을 해소하는 데에 있어서 전문가 모임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G**

여론을 보면 중국은 시장으로서 중요하다. 중국에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먹고 살 수 있다고 인식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안보는 그보다 더 상위개념이고 때문에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한국 입장에서는 그것은 별로 어려운 결정은 아닐 것이다. 당연히 미국을 선택한다. 중국이 아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한국인들을 과거의 시각으로 본다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왜 미국 무기는 우리를 겨누지 않는다고 생각하냐고 했는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중국은 불과 50-60년 전에 한국과 전쟁을 치른 국가이고 한국은 미국 덕에 안보를 지켜오는 입장이다. 이런 논리는 여론 시장에서 생각하기 어렵지 않은가 싶다.

**중국-I**

중국 중심의 질서는 중국이 현재 국가 통일도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먼 일이라고 생각한다. 중국의 무기가 동북아를 겨냥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중국에게는 국가 통일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중국의 무기에 대해서 영국은 위협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미국은 위협이라고 생각한다.

중국이 과연 강대국을 준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맞춰 공공재를 제공하고 있다.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소프트파워와 하드파워를 강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중국-J**

북중 관계는 계속 조정되고 있다. 과거의 시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중국이 주도하는 지역안보 질서에 한국이 왜 참여할 수 없는지를 말하는데 한반도 문제도 진전되지 않고 남북 간 평화협상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6자회담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본다. 중국이 주도하는 이런 안보질서 해결과정에 한국이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한국-H**

동북아는 전략적 조정의 시기, 변혁의 시기를 거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은 강대국이라는 자아정체성을 갖게 되면서 내부에서도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다. 새로운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중요한 갈림길에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에 따라 중국은 새로운 강대국이란 입장에서 대세계 전략, 지역 전략, 한반도 전략을 재검토하는 과정에 있고 시진핑 주석의 생각을 중국 기존 학자들이 자신의 방식대로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일도 목격하고 있다. 북한 역시 핵중심이냐 경제중심이냐를 놓고 중대한 갈림길에 있단 생각이 들고 한국도 약소국 외교에서 중견국 외교로 가기 위한 어려운 진통들을 겪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 한국이 중국을 바라보던 시각, 과거에 중국이 한국을 바라보던 시각으로 서로를 본다면 이 변화의 시기에 서로를 이해하기가 참 어렵지 않은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또 앞으로 우리가 창조해낼 협력과 이익의 공동체를 위한 공간들을 이 실수로 줄이고 있지 않은가 싶다. 한중 관계는 현재 한미동맹과 북한변수를 넘어서 한중 관계 자체가 어떻게 보다 독립적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인가로 나아가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결정적인 시험의 시기가 다가오는 것이 아닐까. 향후 2-3년 후에 미중 관계가 훨씬 악화되고 한중 관계도 악화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운명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2-3년 간 노력을 해야겠다. 상대방에 대한 편견들을 뛰어넘는 유연하고 전략적인 공간들을 찾는 노력들을 해야겠다.

**함재봉 아산정책연구원장**

기획 단계에서부터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많은 논의를 했었는데 오늘 이야길 들어보니 서로의 이해도에 대해 오히려 회의가 더 커진다. 예상한 것보다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 유교나 역사, 문화를 공유한다는 것이 오히려 장애물인 것 같다. 그것 때문에 서로를 안다고 생각하는 데 그게 엄청난 잘못인 듯하다. 관계가 없었더라면 모르는 나라끼리 만나 국가이익을 통해 전략을 세울 텐데 우리는 예전의 관계 때문에 오히려 너무 복잡해졌다. 공유하고 있는 역사와 문화가 짐이 되었다.

우리가 문화적 공통점을 가졌던 시기는 19세기 말까지다. 그 이후로 중국과 한국의 역사는 완전히 별개였다. 그러다 90년대에 와서 다시 이렇게 만났다. 근대사가 끊어져있는 것이다. 이 근대사는 한중 양국 모두에게 너무나 가혹한 역사였다. 그걸 나름의 방식대로 극복해온 두 나라는 콤플렉스로 똘똘 뭉쳤다. 재미 있는 것은 어쨌든 놀라운 노력으로 각각 발전해서 콤플렉스가 이제는 꿈이라는 말로 변해서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우리가 포럼에서 말한 꿈이란 말은 콤플렉스의 긍정적 표현 같다. 근대사의 압박 속에서 꿈도 못 꾸던 것들을 이제 감히 꾸기 시작하니까 이를 표현하는 방법이 거칠 때가 많고 상대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중국은 외교정책을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한 책을 써보기도 하면서 계속 느낀 것은 중국의 안보 콤플렉스를 한국 사람들이 너무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중국하면 자꾸 19세기 이전의 중국을 떠올린다. 지난 100년간 중국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거쳤고 과거의 고통을 다시 겪지 않겠다는 것을 ‘꿈’으로 굳이 표현하는 거지만 사실 굉장히 소박한 것이다. 중국이 큰 나라이고 우리 옆에 있기 때문에 한국에는 그게 전혀 다르게 다가오고 굉장한 위협으로 느껴진다. ‘따궈 대국’이라는 표현이 한국인들에겐 사극에 청나라 사신이 등장해 못되게 구는 장면을 연상시킨다. ‘대국’이란 말은 중국에서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쓸 수 있는지 모르겠으나 한국에게는 그 자체로 큰 콤플렉스이자 아픈 곳을 건드리는 단어다. 그 콤플렉스를 안고 근대국가로 발전해왔고, 어느 정도 성공해서 꿈을 논하고 완성된 모습에 근접해가고 있다. 분단이 굉장히 깊은 콤플렉스였기 때문에 아예 말을 하지 못하다가 이제는 입만 열면 통일을 말한다. 여기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는 것 같으면 그 콤플렉스가 또 터져 나온다.

우리는 이 콤플렉스를 서로 이해해줘야 하는데 잘 안 되고 있다. 다행인 건 기성세대가 모이면 얘기가 아예 안되는데 젊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엄청난 발전이다. 서로의 콤플렉스를 깊이 살펴보고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 하는 이야기가 앞으로 더 오갔으면 좋겠다. 그걸 위해 우리가 젊은 사람들을 모아 이런 포럼을 한다. 여러분들은 제대로 된 한중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첫 세대이다. 아산정책연구원은 앞으로도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